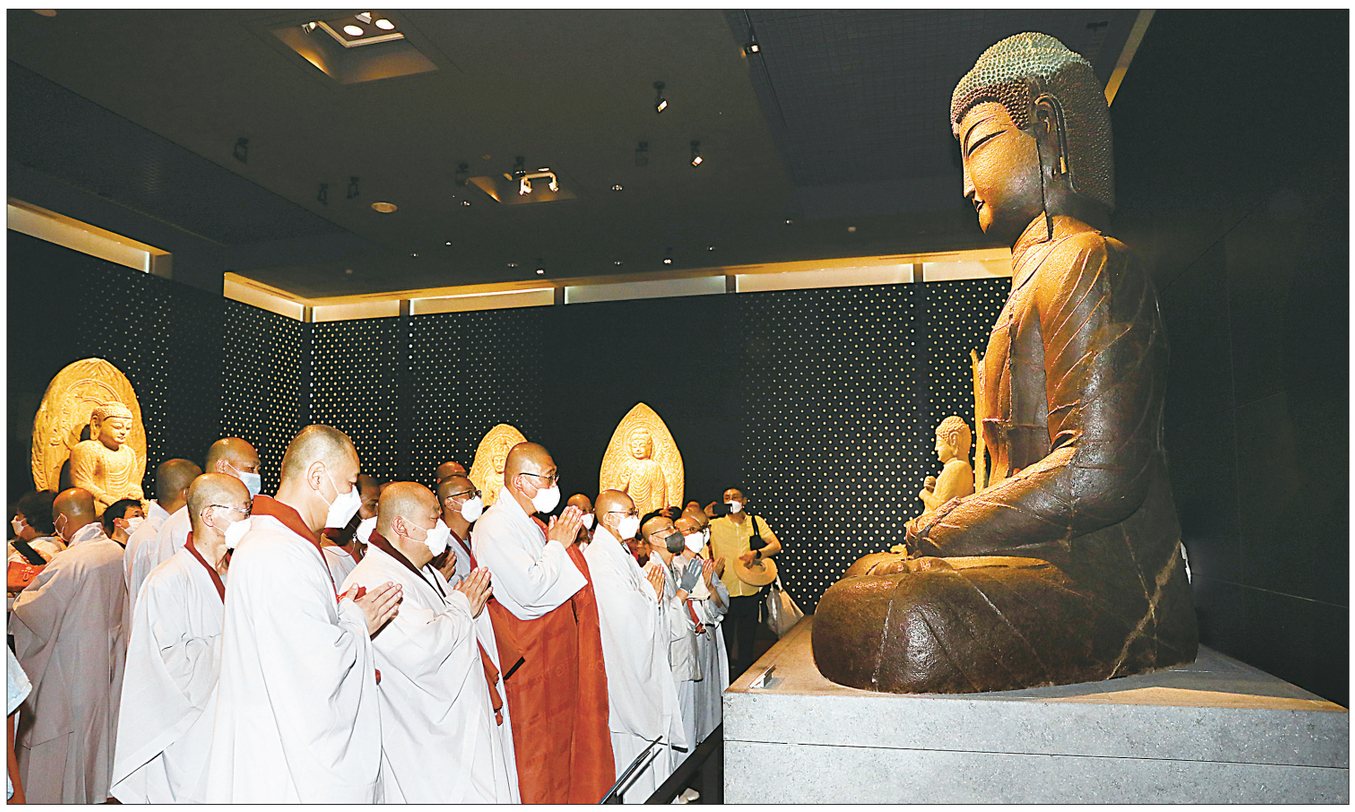
“일제 반출 고려철불, 보원사지로 돌려주세요”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③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보원사지 철불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7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이하 보원사지 철불)’을 참배했다. ‘보원사지 철불’을 참배한 스님과 신도들은 철불이 본래 자리인 보원사로 환지본처하기를 합장하고 일심(一心)으로 기원했다.

철불, 융성했던 보원사 일원 확인 증거

스님과 신도들이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를 기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보원사와 철불 조성의 역사를 살펴보자.

보원사는 신라 하대와 고려 초 크게 번성한 사찰로,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었다. 이 사찰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법인국사 탄문(900~975)이다. 탄문의 행적은 보원사지에 남아 있는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를 보면 알 수 있다.

탄문은 세납 56세에 보원사와 인연을 맺었고, 철불을 조성한다. 비석 기록에 의하면 탄문은 955년(광종 6)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금상삼존을 주조했다(鑄金像之三尊)”고 기록했다. ‘주금(鑄金)’은 ‘쇠를 주조했다’는 의미이며 ‘금상(金像)’은 ‘금박을 입혔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철불 3구를 주성하고 금박을 입혔다’는 것이다.

철불은 금동불상보다는 제작 공정이 훨씬 까다롭지만,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조성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철불은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지방 호족들의 대두와 구리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당시 호족들은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철을 항상 비축했고, 금동불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형 불상을 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재료였다.

보원사지 철불도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 지방 호족인 충주 유씨가 후원했다. 충주 유씨는 광종의 부인인 신명왕후의 가문이기도 하다. 당시 충주 유씨는 철 생산과 유통으로 부를 축적했고, 남한강 일대의 대표 호족으로 성장했다. 실제 남한강 일원의 철조 불상들은 충주 유씨의 후원들이 많다. 중국과 일본의 철불 조성 시기가 각각 12, 13세기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서산 일원의 철기 제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보원사지 철불인 것이다.

일제의 철불 강제 이운 작전

융성했던 보원사가 언제 쇠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1682년에 제작된 〈동여고비〉에 보원사가 표기된 기록으로 봐서는 조선 후기까지는 법맥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진다.

서산 보원사지가 기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다. 1916년부터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반도 일대의 고적 조사를 진행했고, 서산 보원사지에 대한 조사도 이때 이뤄졌다. 일제는 조사를 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보원사지 철불의 안치 상황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다.

1916년 작성된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는 “불상은 전포 가운데에 있다. 소옥(小屋)에 안치돼 있으며 문은 쇄약(鎖鑰, 자물쇠)으로 잠궈 부락민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불체는 좌상으로 정교 치밀해 보기 드문 일품이다”라고 기록됐다. 보원사는 쇠락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별도의 봉안당을 만들어서 불상을 모시고 예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를 마친 일제는 비석과 승탑 등은 놔두고 옮길 수 있는 철불을 이운했다. 이운 시기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휘보(朝鮮彙報, 1919)〉와 〈박물관진열품도감(博物館陣列品圖鑒, 1920)〉 등을 종합하면 보원사지 철불은 1918년 서울로 이운됐다.

높이 2.57m에 무게가 어림잡아 수 톤에 이를 불상을 이운시키는 것은 군대 작전을 방불케 했다. 본래는 해로를 통해 이운하려 했으나 운송비용을 이유로 육로를 통해 불상을 이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1928년 간행된 〈조선불교(朝鮮佛教)〉 제45호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기록을 정리하면 서산 가야산에서 천안역까지 약 20리 운반하는 데 하루 인부 40~50명, 소달구지 대여섯 대가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기도 했다. 천안역까지 운반하는 데만 7~8일이 걸렸다고 한다. 문제는 천안역에 도착한 철불을 열차에 옮기는 일이었다. 기록에는 “‘불상을 어떤 방식으로 기차에 옮길 것인가’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켰다고 한다. 나중에 들으니 기차로 옮겨 싣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술됐다. 이후 철불은 경복궁에 전시됐고, 〈조선불교〉 제45호는 당시의 모습을 “그 장대함과 용안의 풍만함은 원내에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 초 탄문 스님, 철불 조성 추정
보원사 쇠락 후 小屋에 안치 · 보존돼
일제가 강제 징발해 경복궁에서 전시

2020년 환수위 구성…환지본처 추진
서산시 등 보원사지 정비하며 ‘공조’
國博 “관리시설 건립되면 대여 검토”
성일종 의원 “출토지 환수 법안 준비”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높이가 2.57m에 달하는 거대한 철불이다. 1918년 일제가 강제로 징집해 서울로 이운해 경복궁에 전시했다.

일련의 기록들을 정리하면 쇠락한 사찰의 철불을 인근 주민들이 작은 봉안당을 지어 모시고 있었지만, 이를 조사한 일제는 강제로 불상을 서울로 이운해 전시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찰 · 지자체 “철불 환수” 한목소리

보원사지 철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상설 전시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보원사지 철불을 환수하기 위한 운동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이다.

보원사는 지난 2004년 12월 수덕사의 말사로 등록했고, 개원 이래 꾸준히 환수 운동을 추진해왔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려철불 환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월로 고려철불 친견법회를 신도 대상으로 봉행했다. 2020년 6월에는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환수위원회를 구성해 환수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원사는 2020년 4월 광화문1번가에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지본처’를 정책 제안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철조여래좌상이 출토된 보원사 현지에 보존 및 관리 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 규정’에 따라 요청 시 실사와 협의를 통해 대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에는 충남도, 서산시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현재 3단계에 걸친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인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인 잔디와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 단계다. 3단계 사업에는 100평 가량의 방문자센터 건립이 이뤄진다.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를 위해서는 방문자센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수장고 등 보존관리 시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청 관계자는 “수장고나 보존시설, 전시공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사적지 종합정비 일체는 문화재청 소관이다. 두 부처가 나눠진 상황이라서 방문자센터에 보존관리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3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관련 시설 추가 부분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산 · 태안)도 보원사지 보존 정비와 철불 환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특히 성일종 의원은 출토 · 반출된 문화재들을 환지본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방문자센터 규모를 기존 100평에서 400평으로 확장해 철불과 보원사지 문화재의 수장과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 이는 문화재청의 동의를 얻는 상황이며, 협조해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문화재들이 출토 유적의 본적지로 가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준비 ·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원사와 본사인 수덕사도 보원사지 철불 환지본처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새로 개관 예정인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보원사지 철불 대여 전시를 추진 중에 있다.

보원사 주지 정경 스님은 “박물관에 있으면 하나의 소장품에 불과하지만 서산에서는 지역의 철기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보원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성보”라며 “보원사지 철불이 제자리를 찾아 그 가치를 되살렸으면 한다. 이는 지역의 문화 향유권과 인프라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원사지 철불 환지본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본사인 수덕사와 충남도, 서산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새로 개관할 수덕사 성보박물관의 개관 특별전에 보원사지 철불의 대여 전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철불 환지본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수덕사)은 “충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환수 문화재를 조사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수덕사 차원에서도 보원사지 철불과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대한불교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2022년 하반기 종도모집

재단법인 영산법화회는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으로 법화조사님의 개창 66주년을 맞이하고 동시에 장흥도량에 큰 불사를 앞두고 있어 법화경에 인연 있는 종도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화경 전문 도량으로 현재 공찰이 미국 LA 외 전국19개 도량이며, 기본자산이 일천억이 넘은 법화 제일 도량입니다. 스님 복지 우선으로 4대 보험, 각종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현재 재단 이사장이며 교단에 법주 이신 행학 큰스님을 위주로 법화홍통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법화도서관 및 법화노인요양원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화홍통(法華弘通)으로 꿈과 희망을 찾으시려는 재능 있는 많은 인재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나무묘법연화경

■ 모집대상 : 출가승려, 행자, 법화경 연구자, 사찰등록 하실 분
■ 모집인원 : 00명
■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사진 3매
법당내부 · 외부 사진(사찰등록하실 분), 타종단 법랍인증(승려증사본)
■ 출가행자 모집 : 18세 이상
■ 분 담 금 : 상담 후
■ 영산법화사 각 도량 소개 : 영산법화사 홈피(http://ysbuphwasa.org) 참조
■ 디지털법화도서관 : 법화경 관련 서적 50여종
■ 문의전화 : 02)762-4922 (서울 종로구 동숭길116 영산법화사 본사)

※ 본 재단은 개인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